

2020년 5월 4일

후쿠오카 현

금일, 일본은 5월 7일부터 31일까지 계속해서 전국을 '긴급사태선언' 대상 지역으로 하고, 본 현을 포함한 13개의 '특정경계도도부현'에 대해 '최소 70%에서 최대 80% 정도의 접촉 기회의 저감'을 목표로, '계속하여 지금까지와 같은 조치가 필요'하다는 기본적 대처 방침을 밝혔습니다.

이에, 후쿠오카 현에서는 최대한 조기에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지금까지 실시해 온 조치를 5월 31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

현민, 사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.

- ① 생활과 건강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을 삼갈 것. 또한, 외출 시에도 인원을 최소한으로 할 것
 - ※ 생활과 건강 유지에 필요한 경우란, 의료 기관의 통원, 식료품 · 의약품 · 생필품의 구매, 직장 출근, 야외에서의 운동이나 산책 등을 말함
- ② 불필요한 귀성이나 여행 등, 도도부현을 넘나드는 이동은 적극적으로 피할 것
- ③ 집단 감염의 위험을 높이는 「밀폐」, 「밀집」, 「밀접」의 「3 밀」을 피할 것
- ④ 손 씻기 · 소독, 마스크, 기침 예절, 타인과의 거리 확보를 지킬 것
- ⑤ 감염 확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행사(이벤트)나 「3 밀」이 있는 모임을 자제할 것
- ⑥ 사업자는 '출근자 수의 70% 삭감'을 목표로 재택근무를 추진할 것. 출근 시에도 시차출근, 자전거 통근 등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것
- ⑦ 발열이나 기침,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, 의료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말고, 사전에 보건소나 주치의에게 전화로 상담할 것
- ⑧ 시설 휴업 등에 대한 협력

박물관이나 미술관, 도서관 등의 취급에 관해서는 일정 기간(2 주 정도) 경과 후, 감염 상황과 각 시설의 감염 방지 대책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신중히 판단하겠습니다.